

3. 민중은 수단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또 다른 특색이 있다. 그것은 바리사이 파들이 율법체제를 만들고 민중을 그것에 맞게 살도록 강요하고, 에세네파가 엄격한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고 그곳을 찾는 자와 함께 훈련했고, 현대에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역사를 계급투쟁사로 봄으로 프롤레타리아에게 정신적으로 의식화시켜서 총을 메고 전선에 나가 죽게 하는 것을 혁명의 길이라고 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 중 일부는 어떤 투쟁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민중을 투사로으로써 사령탑과 희생자가 구별되는 등, 혁명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어느덧 인간 하나하나의 인권이 무시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싸운다는 사실이다.

예수는 투쟁이라는 안목에서 볼 때 거의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장애가 되는 병자, 약자 그리고 버려진 자 등 이른바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는 저들의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급속한 도래라는 예수의 선언은 바로 이런 민중의 희망을 집약한 것이었다.

4. 민중은 객체일 수 없다

계속 질문을 받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다. 그것은 ‘도대체 민중이 무엇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답에 직접 응할 흥미가 없다. 까닭은 그것이 민중의 정체체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실체로서의 민중을 가뒤퍼리는 계토 역할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개념화하려는 것은 지식인의 버릇으로서 왕왕 지적 유희에 빠지게 한다. 그 대신 다른 측면에서 ‘이 안에서 찾아보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를 그어볼 수는 있다. 나는 ‘마르코복음에서 민중을 찾아보시오’ 하고 싶다. 나는 전에 마르코의 오클로스를 일일이 찾아서 그 성격을 표출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마르코가 전한 예수라는 사건 전체에서 민중의 상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예수와 오클로스를 주객으로 구별하지 말고 그것을 통째로 더불어 사는 그 관계에서 민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갈릴래아의 민중과 예루살렘의 민중 중 어느 것이 민중이냐?’ ‘예수도 민중이냐?’ 하는 따위의 질문은 무의미하다.

마르코복음에 서술된 전기적 요소는 그의 이력서가 아니라 사회전기(social biography)이다. 따라서 마르코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는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Individuum), 인격 등에서 말하는 유아독존적 개체가 아니라 집단성(korporativ, kolkertiv)을 지닌 명사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에서 민중을 떼어놓고 보면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민중을 예수와 떼어놓고 관찰해도 민중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와 민중이 대결하는 그 관계까지도 우리의 관찰에서 제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대립관계에도 민중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민중의 장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중에 대해 고정화되는 개념정립을 거부하는 것이다.